

2015학년도 수시모집 일반전형

논술고사 문제지 (인문계열 II)

모집단위	학부/학과	수험번호	성명
------	-------	------	----

◆ 유의 사항 ◆

1. 시험 시간은 100분임.
2. 답안은 답안지의 해당 문항 번호에 검은색 펜이나 연필로 작성할 것.
3. 학교명, 성명 등 자신의 신상에 관련된 사항을 답안에는 드러내지 말 것.
4. 연습은 문제지 여백을 이용할 것.
5. 답안지 분량은 문항별 답안 길이에 맞추어져 있음.

감독확인



이화여자대학교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기원전 11세기경, 제후국인 주(周)나라가 천자국인 은(殷)나라를 공격할 때의 상황이다. 주나라는 문왕(文王)의 아들인 무왕(武王)이 천명(天命)을 받았다며 군대를 일으켰다. 아래는 이 시대의 인물인 백이(伯夷)에 관한 이야기이다.

백이는 은나라의 신하였다. 백이는 서쪽 지역의 제후인 창(昌: 문왕)의 덕이 높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찾아갔다. 하지만 창은 이미 죽고 마침 그의 아들인 무왕이 아버지의 신주(神主)를 수레에 실은 채로 은나라를 정복하려 떠나는 참이었다. 이에 백이는 그들의 말고삐를 붙잡고 “아버지가 죽었는데 장사도 지내지 않고 전쟁을 일으키니 효도라 할 수 없고, 신하로서 천자를 시해(弑害)하려 하니 어진 일이라고 할 수 없다.”라며 극구 말렸다. 무왕의 군사들이 백이를 죽이려 하였으나 참모인 태공이 “이 사람은 의로운 인물”이라며 풀어주게 하였다.

무왕이 마침내 은나라를 평정하니 온 천하가 주나라를 종주국으로 섬겼다. 그러나 백이는 이를 부끄럽게 여기고 의로움을 지키고자 하였다. 그래서 주나라의 곡식은 먹지도 않고 수양산에 들어가 고사리를 캐어 먹다 굶어 죽었다. 죽기 직전에 노래하기를 “저 산에 올라가 고사리를 캐리라. 포악한 방법으로 포악함을 대신했으면서도, 자신은 그 잘못을 알지 못하는구나. 세상의 도(道)가 문득 사라지고 말았으니, 내 어디로 가서 몸을 의탁할 것인가!”라고 하였다.

[나] 『용비어천가』(1447)는 조선의 건국이 천명에 의한 것이며 중국 성군(聖君)들의 건국에 비견할 만한 정당성을 갖추고 있음을 노래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7장의 경우, 주(周)나라를 건국한 문왕(文王)에게 붉은 새가 글월을 물고와 하늘의 뜻을 전한 일과, 태조 이성계의 할아버지인 ‘도조(度祖)’에게 일어난 기이한 일을 나란히 놓음으로써 주나라와 조선 모두 건국 ‘혁명’의 정당성이 하늘에서 주어진 것임을 역설하고 있다.

붉은 새가 글월을 물고 침실 문에 앉으니
 성자(聖子) 혁명에 하늘의 복을 보였습니다
 뱀이 까치를 물어 나무 끝에 엮으니
 성손(聖孫)이 일으킬 일에 아름다운 징조를 보였습니다

『용비어천가』는 고려 왕조를 폐하고 조선을 개창(開創)한 역성혁명(易姓革命)을 찬양하기 위한 노래였다. 비록 부패한 세상을 바로잡는다는 명분이 있었다 해도 혁명을 통한 건국의 정통성이 여전히 확고하지 못했기에, 태조와 태종은 물론이고 4대조(四代祖)까지 함께 ‘해동 육룡’으로 미화하였다.

해동에 육룡이 날아 하는 일마다 하늘의 복이 있으니
 (육룡의 일이) 옛 성군들의 일과 일치하니

『용비어천가』는 단순히 궁중악장의 용도에 한정되지 않고, 한글 가사와 한역시(漢譯詩)를 포함한 한문 주해본으로 간행됨으로써 혁명의 정당성을 전파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였다. 후세에 전란을 겪은 광해군과 효종도 『용비어천가』를 다시 간행하여 국운을 새롭게 일으키고자 하였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한문과 한글이 나란히 쓰인 『용비어천가』의 축약본을 펴내어 백성들이 두루 읽도록 하였다.

[다] 기존의 법으로 긴급 상태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는 어렵지만, 긴급 상태는 실질적이고도 적절한 법의 원천을 이룬다. 혁명이나 헌정 질서의 수립과 같은 예외 상태는 기존의 법질서에서 비합법적이라고 간주될 수 있지만, 그것이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법적으로 하나의 완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혁명은 기존의 국가권력에서 볼 때 반(反)법률적이지만, 이는 전복의 대상인 국가에 존재하는 법체계 안에서만 그렇다. 긴급 상태는 혁명과 같은 예외적인 상태를 통해 모호하고 불확실한 영역을 만들어내는데, 이 영역에서는 법률 바깥에 있거나 반법률적인 사실들이 법체계 속으로 편입됨으로써 사실과 법률의 구분을 어렵게 만든다. 즉 예외 상태에서는 위기 상황이 법으로 전환되며, 동시에 기존의 법이 정지되거나 무효화되기도 한다. 이처럼 사실과 법은 모호한 경계 안에서 서로에게 흡수되며, 그 과정에서 긴급 상태는 객관적이 아닌 주관적 판단에 의해 좌우된다. 기존 체제를 유지하려는 목적에서든 전복시키려는 목적에서든, 긴급 상태는 도덕적 또는 정치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초법적 판단을 요구한다.

[라] 어떤 문제가 다양하고 격렬한 의견 충돌로 이어진다면 이것은 ‘지식’의 영역이 아니라 ‘신념’의 영역에 속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신념은 이성애 의해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혁명은 합리적인 동기에서 시작되더라도 하나의 신념으로 변화하기 마련이다. 군중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혁명이 되려면 그것이 감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합리적인 동기를 가진 혁명은 그것이 파괴해야 할 대상에 집중하지만, 다수의 군중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을 수 있는 감정적이고 신비적인 요소가 필요하다. 그런 까닭에 정부의 명칭을 바꾸는 것만으로 사람들의 정신을 변환시킬 수 없으며, 기존 제도를 전복시키는 것만으로 그들의 심금을 울릴 수 없다.

[마] 영희의 이야기를 나는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영희는 독일 하스트로 호수 근처에 있다는 릴리푸트 읍 이야기를 했다. 자세히 듣지 않아도 슬픈 이야기였다. 돌아간 아버지를 생각하면 언제나 눈물이 나려고 했다. 릴리푸트 읍은 국제 난장이 마을이다. 여러 나라의 난장이들이 그곳에 모여 살고 있다. 키가 칠십팔 센티미터로 세계에서 제일 작은 사나이인 터키인 난장이도 최근에 그곳으로 이주했다. 릴리푸트 읍의 난장이 인구는 늘어만 간다. 릴리푸트 읍을 제외한 곳은 난장이들이 살기에 모든 것의 규모가 너무 커서 불편하고 또 위험하다.

난장이들에게 릴리푸트 읍처럼 안전한 곳은 없다. 집과 가구는 물론이고, 일상생활 용품의 크기가 난장이들에게 맞도록 만들어져 있다. 그곳에는 난장이의 생활을 위협하는 어떤 종류의 억압, 공포, 불공평, 폭력도 없다. 권력을 추종자에게 조금씩 나누어주고 무서운 법을 만드는 사람도 없다. 릴리푸트 읍에는 전제자가 없다. 큰 기업도 없고, 공장도 없고, 경영자도 없다. 여러 나라에서 모인 난장이들은 세계를 자기들에게 맞도록 축소시켰다. 그들은 투표를 했다. 그들은 국적 따위는 무시했다. 모두 열심히 투표에 참가하여 마리안느 사르를 읍장으로 뽑았다. 여자 읍장의 키는 일 미터이다. 독자적인 마을을 열망한 작은 힘들이 난장이 마을을 세웠다. 영희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그곳 난장이들은 혁명가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이제 자녀들의 출산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않는다. 거인들이 사는 곳에서는 너무 불행했었다.

지금 릴리푸트 읍의 난장이들은 자기들의 특수 의료 문제, 사회 심리적인 문제, 그리고 재정 문제 등을 토의하고 있다. 해결해야 될 몇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우리는 극히 행복하다.”고 마리안느 사르 읍장은 말했다.

‘행복’이라고 영희는 썼다. 영희는 돌아간 아버지를 생각했다. 나는 영희의 눈에 눈물이 꺾는 것을 보았다. 릴리푸트 읍 같은 곳에서 아버지는 살았어야 했다. 아무도 “난장이가 간다.”고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스트로 호수 근처에 살았다면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지 않았을 것이다. ‘타살당한 아버지’라는 말을 영희가 했었다. 나는 영희의 말을 막을 수 없었다. 깊고 캄캄한 벽돌 공장 굴뚝 안을 생각하면 숨이 막혔다. 아버지의 몸은 작았지만 아버지의 고통은 컸었다.

[바] 19세기 초반 미국 동북부의 뉴잉글랜드 주민들은 자신들의 타운 공동체에 애착을 갖고 있었다. 이것은 단지 타운에서 태어났다는 사실보다는 소규모의 공동체 안에서 자유로우면서도 강력한 유대감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같은 시기 프랑스에서는 이와 같은 소규모 공동체 정신이 취약했으며 그나마도 질서 유지와 공공의 정신이라는 국가적 명분에 밀려나 있었다. 설령 강력하고 독립적인 타운 공동체가 있었다고 해도 사회를 분열시키고 무정부상태를 야기한다는 의심을 받았다. 반면 힘이 약하고 독립성도 결여된 타운 공동체의 경우 그 구성원들은 시민이 아니라 한낱 피지배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

뉴잉글랜드에서는 연방 정부의 존재가 거의 눈에 띄지 않았으며 지역 공동체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치인의 수도 극히 드물었다. 주민들의 일상생활은 타운 공동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사람들은 이곳에서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고 권리를 행사했다. 이러한 정치적 경험은 지역 사회를 곤경에 빠뜨리지 않으면서도 변화하는 환경에 지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적응할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 지방 정부의 임무는 공동체가 바라는 일을 대신하는 것이었으며 지방 관료 또한 공동체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었다. 뉴잉글랜드에는 신분 차별이 존재하지 않았다. 공동체의 소수 구성원을 억압하거나 부당하게 대우하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사] 경제를 관리하는 문제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국가의 귀환’이 부재함을 한탄하고 있다. 그들은 대공황이 실로 끔찍했지만 적어도 조세 정책과 예산 정책에 있어서만은 급진적인 변화를 가져온 공을 인정할 만하다고 지적한다. 2010년대에 다시 나타난 ‘국가의 귀환’이라는 현상은 1930년대와는 다른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이유는 단순하다. 이제는 국가의 영향력이 과거 어느 때보다 커졌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2008년의 금융 위기는 시장의 실패에 대한 고발과 더불어 국가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성찰을 불러일으켰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수십 년 동안 국가는 경제와 사회생활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는데 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었다.

사실 반(反)시장주의와 반(反)국가주의 모두 부분적으로 타당한 주장들을 펼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마구잡이로 내달리고 있는 오늘날의 금융자본주의를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조세 제도와 소득 이전 제도에 대해 국가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개혁과 현대화를 이루는 일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 제도들은 이미 너무나도 복잡한 수준에 이르러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국가의 효율성을 약화시키는 위협 요소가 되고 있으며, 향후 우리의 민주주의 사회에 대한 커다란 도전이 될 우려가 있다.

- 1 (1) 제시문 [가], [나], [다]에 나타난 혁명에 대한 태도를 대비하여 설명하시오. [25점]
- (2) 제시문 [라]의 관점에서 제시문 [나]의 『용비어천가』 간행 의도를 평가하시오. [15점]
- 2 제시문 [마]의 ‘릴리푸트’와 제시문 [바]의 ‘뉴잉글랜드’ 간의 유사성을 기술하고, 이와 대조하여 제시문 [사]의 주장을 분석하시오. [30점]

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세계 경제는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각국의 소득 분배의 불평등과 같은 분배구조는 위기 발생 이전보다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의 표는 OECD가 최근 발표한 각국의 소득 분배 불평등 지표 중 일부 국가의 가구 기준 통계를 발췌한 것이다. (해당 기간 중 가구 수의 증감 및 가구의 계층 간 이동은 없었다고 가정한다.)

[표 1] 각국의 소득 분배 불평등 지표

국가	지니계수*		하위 10% 대비 상위 10% 소득 (배)		계층별 소득 비중 (2011년 말 현재, %)					
	2007	2011	2007	2011	하위 10%	하위 20%	하위 40%	상위 40%	상위 20%	상위 10%
그리스	0.335	0.335	10.0	()	?	6.3	18.8	63.4	39.7	?
덴마크	0.246	0.253	5.1	5.3	4.0	9.7	24.0	57.5	34.7	21.0
스페인	0.306	0.344	8.4	13.8	1.8	6.0	18.3	64.3	40.5	24.6
영국	0.341	0.344	9.8	9.6	2.9	7.5	19.7	64.0	42.2	27.6
호주	0.336	0.324	9.3	8.5	2.9	7.3	19.8	63.0	39.7	24.4
이태리	0.313	0.321	9.0	10.2	2.4	7.1	20.0	62.4	39.3	24.4
칠레	0.511	0.503	29.5	26.5	1.5	4.3	12.5	75.3	56.4	40.9
캐나다	0.318	0.316	8.5	8.5	2.8	7.6	20.4	62.2	39.2	24.2
프랑스	0.293	0.309	6.8	7.4	3.4	8.5	21.6	61.5	39.7	25.5
한국	0.312	0.307	10.0	10.2	2.2	5.0	20.2	61.4	37.5	20.0

* 지니계수: 일국의 소득 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진다. 소득 분배가 완전히 불평등할 경우는 1이 되며, 완전히 평등한 경우는 0이 되는 특징이 있다.

- (1) [표 1]의 국가 중(그리스 제외) ①과 ②에 해당하는 국가를 각각 통계적인 근거와 함께 제시하시오.
 ① 2011년 현재 소득 분배가 가장 불평등한 국가
 ②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득 분배의 불평등이 가장 악화된 국가
- (2) 그리스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경제적 타격이 매우 컸던 나라 중 하나이다. [표 2]에 제시된 그리스의 2008~2011년의 전년 대비 소득 증가율 추이를 보고, [표 1]에서 누락된 그리스의 2011년 기준 하위 10% 대비 상위 10%의 소득 배율을 추정하고, 근거를 밝히시오.

[표 2] 그리스의 소득 증가율 추이(%)

	2008	2009	2010	2011
전체	1	1	-16	-20
상위 10%	0	3	-10	-20
하위 10%	0	3	-20	-30

- (3) 한국의 2011년 말 현재 하위 20% 계층의 가구당 월 평균소득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하자. [표 1]을 이용하여 상위 10% 계층의 가구당 월 평균소득을 추정하고, 근거를 밝히시오.